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유마경 ①

대승불교는 재가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개혁운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운동은 종래의 출가교단의 권위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재가의 생활과 유리되지 않는 새 불교의 지평을 열어 가려고 하는 사상의 주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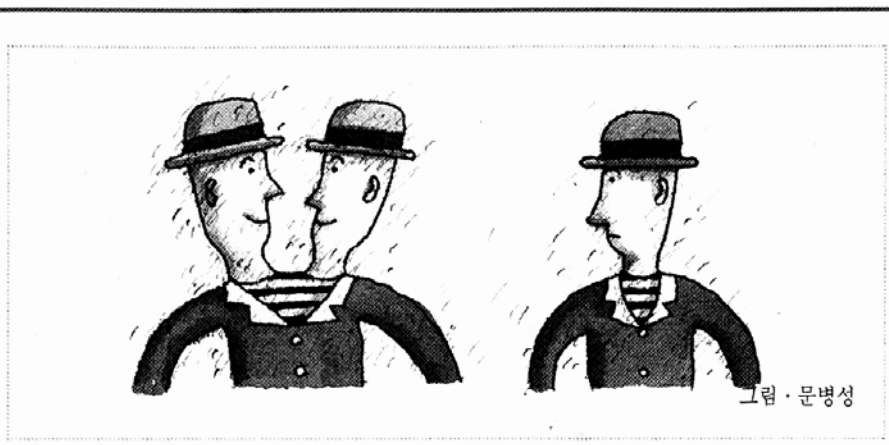
대승불교가 펼친 사상은 공(空)의 실천이념인 반야바라밀(지혜의 완성)이다. 기원전 1세기경에 시작된 대승불교 운동은 점차로 내용이 증폭되었고 종류도 다채롭게 되어서 반야경전군(般若經典群)을 이루게 되었다. 대승불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인 <유마경(維摩經)>은 반야경전군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된 것이다.

<유마경>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고 하는 시

행기에서 비말라키티가 거주했다고 하는 집이 바이살리의 땅과 밭에서 동북쪽으로 3리쯤 되는 곳에 있었으며 '불이(不二)의 법문(法門)'으로 유명한 진 방도 남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유마경>은 그 원전이 현존하지 않지만 원전의 명칭은 전해지고 있기에 그것을 통해 유추해 볼 때 비말라키티 니르데사(Vimalakirti nirdeśa)라고 할 수 있는데, '비말라키티'의 설교라는 의미가 된다.

한문으로 번역한 책은 모두 '경(經)'이라는 문자를 붙였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전에는 수트라(Sutra)라는 말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트라라는 말을 붙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문으로 번역한 스님들이 비말라키티라는 부처님의 화신(化身)이라고 생각했기에 '경



그림·문병성

양자-인드라망 '동일상태'

불교와 과학 <8>

일상성 - 3

1935년 아인슈타인과 그의 두 동료는 하나의 획기적인 논문을 물리학회지에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은동상태에 대한 양자역학의 기술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발표된 실험내용은 실제로 이루어진 실험이 아니라 가상적인 일종의 사고실험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양자와 같은 소립자들은 전하를 띠고 있는데, $-2/e$ 와 $+2/e$ 의 짝을 이루는 에너지보존 상태인 e_1 , e_2 의 두 입자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쏜다고 하자. 이 경우 한쪽 방향으로 날아가는 입자 e_1 에 대하여 전자석을 걸어주면 그 입자는 전기를 띠고

한 비인과적 사태가 텔레파시에서나 가능한 것이라 하였고, 그런데 텔레파시는 당연히 물리학의 연구 영역이 아니므로 물리학의 인과율에 거스르는 e_2 의 사태를 기술한 양자역학의 기술방식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바로 이 논문의 요지였다.

그러나 4달 후 닐즈 보어라는 물리학자는 아인슈타인 주장에 대한 반박논문을 게재하였다. 양자역학자로서 보어의 기본 입장은 아인슈타인이 두 개의 개체라고 보았던 e_1 과

과학 양자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입자
불교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된 '不二관계'



이러한 양자세계의 운동상태는 전통 물리학의 세계관을 뒤엎어 놓는 일이었다. 물리학은 인과율을 기반으로 하는데 e_1 의 입자는 분명히 인과적인 물리현상이기는 하지만, e_2 의 동시적 실험은 전혀 인과적이지 않은 사태이다. 이는 마치 두 쌍둥이 중 한 명이 틀에 맞아 머리에 폭이 난 순간, 같은 시간에 틀에 맞지도 않은 다른 쌍둥이 한 명이 동시에 머리에 폭이 나는 해괴한 사건과 같다. 아인슈타인은 이러

e_2 는 실제로 독립된 두 개체가 아니라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입자상태라는 것이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동역학과 보어의 동역학이 보여주는 세계관의 차이를 주목한다. 아인슈타인에게서 미시세계의 개체는 그 외형적 조건처럼 하나, 둘, 셋으로 셀 수 있는 분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분리된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보어에게서 미시 입자의 개체들이 외형적으로는 셀 수 있는 분리된 개체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모두 연결된 하나의 비분리적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 이후 50년 넘게 후대의 수많은 물리학자들은 하여금 인과성의 범위 안에서 물리현상을 국한해야 하는 것이지 아니한 전통적 인과율에 맞지 않는 비분리의 물리상태를 인정해야 할

인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또 하나의 인간의 오만함을 보여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양자상태와 인드라 망의 상태가 같다는 말은 현대 양자역학의 이론이 이미 불교에 다 들어 있었고,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불교의 사상이 위대하다는 주장을 한다면 불교 스스로의 족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개별이 아닌 전일적이고 비분리 상태를 유지하는 양자상태의 세계를 인드라 망의 세계를 유비하는 일을 통하여 오히려 불교가 바라보는 열려 있는 세계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나의 마음을 열어 놓는 계기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자연을 설명하는 길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는 길은 무한할 수 있지만, 자연은 하나이며 깨달음도 하나라는 점을 아는 일도 중요하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choi@chiak.sangji.ac.kr)

여성·환경 등 사회문제 불교관점에서 해법 찾기

지구촌 불교 / 美 스님·법사대회

2천 5백여 년 전에 이루어진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 서양인의 마음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달 7일 미국 캘리포니아 우드레이크레 시(市)에서 열린 제6회 스님·법사대회(The Conference of Network Buddhist Teachers) 대회는 이러한 궁금증에 답하는 대회였다.

북미주와 유럽에서 전범에 힘쓰고 있는 스님과 법사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이 대회는, 서구의 불교 열풍은 서양인 스스로 동양의 가치에 관심을 두는 상황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들 가까이에서 '열린 불교'를 보여준 아시아계 스님과 법사들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삼탈라선(Shambhala Sun)>지에 따르면, 5일간의 대회 기간 동안 스님과 법사들은 서양인 불자들이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대회의 주제로 '아시아의 종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내세운 것 역시 이러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명상 관련 저술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조셉 골드스타인이 달라이 라마에게 질문하고 있다.

93년 달라이 라마 제창...2년마다 열려

북미·유럽 거주 스님 등 2백여명 참가

현재 북미주와 유럽에는 일본·티베트·대만·스리랑카·한국·태국 등 아시아의 여러 불교가 진출해 있지만, 서양인들은 이들 불교를 구분하는 일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대신 서양인들은 자신을 닮은 수행과 불교의 사회적 실천 즉 여성, 기아, 환경, 풍상에, 질병 등 지구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스님은 탄나산티(Thanasanti) 비구니. 스님은 "미국인 여성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과연 여성을 곁들이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 무척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북미주와 유럽에서 포교하고 있는 아시아계 스님과 법사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나산티 스님은 달라이 라마에게 "아시아불교지도자대회(International Meeting of Asian Buddhist Leader)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북미주와 유럽에 진출해 있는 태국, 티베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불교는 아직도 여성의 출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조안 메시(Joanna Macy)는 '불교생태학의 모색', 랄프 스틸(Ralph Steele)은 '서구 사회에서 백인 승단 출방의 미', 로버트 서만(Robert Thurman)은 '무지와 탐심을 끊는 수행', 페마 초드론(Pema Chodron)은 '여성과 승단' 랩게이 롱상(Raggy Longsang)은 '공동체 개발' 등을 발표해, 아시아를 떠나 북미주와 유럽에 새로운 터전을 닦고 있는 불교를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스님과 법사들은 포교 현장에서 만난 서양인과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스님·법사회 대회는 1993년 티베트의 정신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제안에 따라 인도 다람살라에서 조지돼, 2년 주기로 대회를 열고 있다. 미국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샌프란시스코 선원과 스피리트 락 명상원에서 주관했다.

오종욱 기자(gobaoo@buddhapia.com)

대승불교 이상적 인간형 자유롭고 진취적인 재가불교 제시

점으로부터 이 경전이 성립된 장소가 어디인가를 추정할 수가 있다. 대략 경전이 서술하는 장소는 갠지스 강 북쪽의 상업도시 바이살리(vaishali)로 보고 있다. 바이살리는 리차비(Licchavi)족이 건설했고, 이 종족은 일찍부터 불교신자가 많았으며,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기풍을 가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100년이 지나서 교단은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다시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분열의 가운데에 바로 리차비 종족 출신의 승려들과 재가불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개혁을 강조하게 되고, 개혁의 흐름이 뒤여 대승불교로 발전한 것이다.

<유마경>은 바로 이와 같은 진보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성립되었으며, <유마경>의 자유스러운 정신 역시 이러한 토양 위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마경>의 주인공인 비말라키티(Vimalakirti)도 이 도시의 주민이며, 리차비족 상인이었다. 비말라키티가 실재했던 인물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현장삼장(玄奘三藏)의 여

경(經)으로 불려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거사(維摩居士)는 속가의 사람이며 '거리의 도인' '거리의 철인(哲人)'이라 불리었고, 재산가였으며, 정치 법률에도 정통하였고, 모든 이들에게서 존경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잘 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어느 틀인가 바른 길로 인도했고, 어디에 있던지 더러움에 물드는 법이 없었고 악에 동화되는 법이 없었다.

이처럼 훌륭한 유마거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보시하여 선근(善根)을 심고, 신명력을 얻어 뛰어난 기억력을 가졌고,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자신을 가졌으며,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방편력(方便力)을 가진 인물이다.

대승불교도의 종교적 이상형이 <유마경>의 주인공이다. <유마경>은 재가불자가 어떻게 불교를 배우고 익히며 성군을 삼아 부처를 이루고 보다 넓고 크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인사 승가대 교수

불국토 홈페이지 : www.bulgukto.or.kr

불국토의 밤 2000

제8회 보리방송문화상 및 자랑스런 불자상 시상식

올해도 어느 해 못지 않게 열심히 수행하고 포교했습니다. 이제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때에 불사의 주역들을 한자리에 모셔 포상하고 그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하니 축하와 격려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회 보리방송문화상 공모

보리방송문화상은 방송을 통한 불교문화 계승창달과 불교사회발전을 목표로 1999년 11월 1일~2000년 11월 15일까지 방영된 불교관련작품을 대상으로 포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추천기간 : 2000년 11월 15일
- 추천작 : VHS 녹화 및 녹음테이프 1개
- 시상내역 : 1. 일반 TV부문 / 작품상 대상 : 상패 및 연구지원금 2,000,000원 우수상 : 상패 및 연구지원금 1,000,000원 2. BBS부문 / 개인상 : 연출상 : 상패 및 연구지원금 1,000,000원 진행상 : 상패 및 연구지원금 1,000,000원 지역방송상 : 상패 및 연구지원금 1,000,000원
- 문의처 : 보리방송모니터회 (02-712-5813)
- 역대수상자안내 : 제1회 : 마애석불의 미소(대원 MBC), 오백번째 나한(교육방송) / 제2회 : 선철대보산 범어사(부산 MBC), 한국의 불교(한진영상 KBS) / 제3회 : 인간기행 보리(현대방송), 직지(直指) (청주 MBC), 고승열전(서울 BBS), 사라진 개화승 이동인(서울 BBS) / 제4회 : 대륙으로 간 신라왕자(대구 KBS), 팔공산 백룡암(대구 MBC), 자비의 전화(서울 BBS), 물같이 바람같이(부산 BBS) / 제5회 : 팔만대장경(서울 KBS), 천제 서예가 김진민(전주 KBS), 한국의 명찰(서울 BTN), 자비의 천수천안(서울 BYN), 무명을 밝히고(서울

제8회 자랑스런 불자상 공모

자랑스런불자상은 2000년 한해 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가장 기여한 재가불자를 선정하여 원력과 신행생활을 널리 알리고 포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추천기간 : 2000년 11월 18일까지
- 포상내역 : 상패 및 부상(2,000,000만원)
- 역대수상자안내 : 제1회 : 이문옥(전 감사관) / 제2회 : 황영조 / 제3회 : 용태웅(변호사) / 제4회 : 공종민(조선일보 논설위원), 김홍국 / 제5회 : 최원수(미술사학자) / 제6회 : 백승환(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현익채(금정중학교 교장), 김원수(동호여상 교사) / 제7회 : 이하우(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유정길(불교환경교원 사무국장)
- 문의처 : 불국토 사무국 (051-868-0951)

시 상 식

◆일시 : 2000년 12월 5일(화) 오후 5시 ◆장소 : 코모도호텔 1층 중무홀

주최 : 사단법인 불국토,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청소년법인 불국토청소년도량
주관 : 자랑스런불자상 운영위원회위원장 해충스님, 보리방송문화상운영위원회위원장 수불스님(일반TV), 정여스님, 범산스님(라디오), 보리방송모니터회
후원 : 감로사, 관음사, 내원정사, 부산불교회관(여여선원), 안국사, 영주암, 장천사, 천성사, 청담선원, 개금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재가노인복지센터, 불국토한의원, 관음어린이집, 사이버선관 POWER1318.com